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해남 유치 총력”

군수, 정례회의서 동력확보 다짐
고고·민속자료 보유 ‘전국 유일’
400억 투입 전시 클러스터 조성

명현관 해남군수가 최근 군청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등 해남군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공모사업들을 면밀히 준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선8기에도 대규모 국비사업 유치로 해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30건, 1,59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남군은 올해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문화재청 주관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조성 사업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한역사문화권 관리, 연구, 전시의 거점 클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들.

/해남군 제공

러스터로 조성되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국비 400억원을 투입해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실과 전시관, 유적공원 등을 조성한다. 해남군은 마한 전 시대(BC.2~AD.6)에 걸쳐 고고자

료·문헌기록·민속자료를 보유한 전국 유일지역이라는 점에서 센터 입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마한역사복원 전담팀을 구

상해 역사문화권 정책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과 문화재 시·발굴조사, 문헌 고증 및 마한민속 발굴, 디지털·영상기록화, 연구논문 및 발굴기록물 작성, 민관학 협력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유치를 위한 군민추진단이 발족하는 등 군민들의 동참 열기도 더해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교통적 제약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시설이 전무했다”며 “이번 군민추진단의 의지를 모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역사문화권 정비선도사업을 해남군에 유치함으로써 마한문화권의 균형잡힌 공동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 개최지 먹거리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과 목포구등대 일원 도로 등 관광기반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 강화 등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도 이뤄졌다.

/해남=박병태 기자

강진5호 김호제 ‘아너’
꾸준한 나눔 실천 화제



김호제 강진주류 대표이사가 최근 강진군청 군수실에서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호제 대표는 2019년에 강진5호(전남83호)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해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 원을 기탁하며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아너 소사이터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 설립한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의 기부 또는 5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탁된 성금은 사람의 집 짓기, 사회복지시설 물품·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됐으며, 이번 성금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호제 대표이사는 “따뜻한 나눔으로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부문화의 선두주자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호제 대표께 감사드리고, 나눔과 베품에 앞장서 주는 노력에 힘이 되도록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청산도에서 ‘느림의 여유’ 만끽하세요

슬로걷기 축제 내달 8일 개막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청산도에서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30일간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산완보 스탬프 투어 ▲폴로깅 캠페인 ▲은하수 투어 버스 ▲청산 진성 야간 산책 ▲달팽이 엽서 보내기 등이다.

‘청산완보’는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 이상을 걷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와 청산도의 밤하늘을 감상



완도군이 최근 2023청산도슬로걷기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완도군 제공

할 수 있는 ‘청산 진성 야간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야간 투어 버스를 타고 주민 해설사와 청산도의 곳곳을 탐방하는 ‘은하수 투어’, 엽서

를 써서 보내면 1년 뒤에 도착하는 ‘달팽이 엽서 보내기’, 유채꽃이 활짝 핀 청산도에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세트 대여’, 쓰레기를 주워오면 비누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폴로깅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개막식에는 ‘나비야 청산 가자’를 주제로 나비 날리기, 힐링 콘서트, 명사와 함께 걷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21일 군수,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운영에 대한 부서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봄,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모두 푸른 섬 청산도로 오셔서 바쁜 일상 속 느림의 여유를 만끽하며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함평, 제42기 노인대학 입학식

제42기 함평노인대학 입학식이 최근 노인회지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노인대학장의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 대표의 노인강령 낭독, 선서, 노인대학장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함평군 노인대학은 9개 읍면에서 총 66명이 입학했다.

노인대학은 오는 11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학생들은 교양, 건강, 시사정보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이 만학의 꿈을 펼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며 “새롭게 배움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용기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함평군 노인대학은 군민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지난 1982년 개교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0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장성군수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총력”

밀동저수지 등 현장 점검

김한중 장성군수(사진)가 지난 27일 오전, 장성을 밀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김 군수는 앞선 26일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성호를 찾아 농업용수 공급대책

을 논의했다.

연일 현장 확인에 나선 김 군수는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도록, 영농기 가뭄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장성군은 물 공급이 시급한 장성 밀동, 남면 외마, 동화면 구룡, 황룡면 외곡, 서삼면 장산저



수지 5개소에서는 물체 우기를 실시 중이다. 인근에 설치된 관정 등 보조수원을 활용해 최대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서삼 임곡, 복이 신월 양수장은 물을 끌어오는 취입보 준설 공사와 정비를 추진한다. 읍면

별로는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분은 새로 구입한다.

장성 구산 등 4개소는 저수지 보조수원을 개발해 물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군은 4-5월 이내로 신속하게 가뭄대책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원면 온곡, 삼서면 보생, 삼계면 덕산지역에 새롭게 준설 중인 저수지는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아산자동차정비사 대표, 취약계층에 후원품

봄을 맞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치는 아산자동차정비공업사(정기흥 대표)가 목포시 부주동을 찾아 라면 50상자를 전달했다.

정기흥 대표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뜻을 전했다.

부주동은 기부 물품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50가정에 전달했다.

박윤희 부주동장은 “사랑이 담긴 나눔 물품을 잘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희망이 넘치는 부주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아산자동차공업사는 2020년, 2021년에도 라면 100상자를 후원했고, 지난해에는 밀반찬 50개를 부주동에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의 모범이 되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신안, 1004점 농업대학 입학식

신안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우량 군수와 김형성 신안군의회 의장, 교육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4점 농업대학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 온라인마케팅 등 2개 과정에 총 69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이론과 실습교육

을 병행해 열린다.

온라인마케팅과정은 분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직접 판매하는 실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정은 실제 적용 가능한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영농의 궁극적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담양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연수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정기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학년도 소위원회 활동 보고와 더불어 학

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이어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가상시나리오를 활용한 소위원회별 모의 심의가 진행됐다.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 진행 시 유의 사항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 조치를 위한 합리적 결정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다.

/담양=정일남 기자